

365운동으로 영원한무재해SKC

1. 365운동의 개요_ 365운동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로 시작하는 SKC 주식회사 천안공장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안전활동 프로그램이다.

365의 “3”은 부서장, 관리감독자, 작업자 3개 직책을 갖춘자가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고, 무재해 사업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안전기본 수칙, 즉, 안전조회 실시, 안전교육 참석, 안전장치 점검, 안전순찰 생활화, 안전수칙 준수, 정리정돈 습관화가 있고, 매일 작업 시작전·후 5분씩 실천하는 습관화를 말하는 안전운동이다.

2. 도입 배경_ 필름 가공 공정 특성

상 료에 의한 접촉·말릴 위험, 위험물질 사용시 정전기로 화재 위험 등의 위험요인 중에 물체와의 접촉에 의한 안전사고가 크다. 이로 인해 천안공장에서는 과거 1999년 이전까지만 해도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년이 넘는 회사 역사에 맞는 안전기법을 정착시켜 안전한 기업, 영원한 무재해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365운동을 개발하여, 1999년 10월부터 사업장에서 전개해 나갔다.

이는 무재해 21세기의 초석이 되어 무재해 목표 1500만 인시를 달성하고 연말에는 무재해 1600만 인시를 달성할 것이다.

3. 성공적인 추진사항_ 365 운동

중 “6”의 일환으로 천안공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활동은 입체적이고 다양하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점검이다. 특히 공장장과 노조위원장님이 직접 참석하여 정기적으로 노·사가 함께 안전점검을 펼쳐, 사고 요인 338개소를 제거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도 노조간부와 과장 이상이 함께 추진함으로써 SKC 천안공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365 운동에는 안전기본이라는 이념이 깔려 있다. 이러한 이념은



20년 전이나 지금도 우리 삶을 편안하게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온 SKC가 앞으로 이루어 갈 미래를 통해, 고객의 21세기를 변화시킨다는 행복한 고민이 한창인 가운데 천안공장에서는 경사가 생겼다.

2000년부터 달라진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시작한 무재해가 1500만 인시 목표 달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365 운동」이 있다.

전사원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안전선서”를 통한 의지를 다지고, 서명을 통한 참여 유도를 시작하여, 매일 계절별 안전지수, 사고통계 결과를 토대로 집중 관리 사항을 ISSUE화 하는 등 중점관리로 표출된다.

이 밖에도 전사원의 안전활동 참여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매년 안전 포스터와 안전표어 공모를 통해 사업장 곳곳에 게시 및 전시를 하는 것과 장식준 부장이 각 부서에서 관리되어야 할 안전 POINT를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서 안전활동을 전개하는 안전 POINT 등도 영원한 무재해 SKC 천안공장의 초석이 되고 있다.

4. 평가 및 실적_ 2000년 이전의

근로자들의 생각과 지금은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다. 21세기를 접어들면서부터 무재해가 지속되고 있는 SKC 천안공장을 보면 쉽게 짐작이 된다. 즉, 이곳에는 안전제일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365 운동의 정착이 있어 가능했고, 2004년에 SKC의 새로운 안전문화로 Level Up 되었는데, 매 분기마다 사원 안전지수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365 운동 시행전 안전지수 측정결과 5점 만점에 부서별 평균 2점 이었던 것이 올 상반기에는 전부서 안전지수가 모두 4점을 넘겼고, 평균 4.47의 높은 안전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나 실무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기운은 그 이상이라 한다.

이 밖에도 안전작업표준서 845건을 작성하였고, 302건의 앓차 사고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안전당면제 및 화기사용 책임제 실시, 취약지역 당면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문화로 뿌리내렸고, 안전우수부서 및 이달의 안전365인 선정은 자율안전을 정착시켰다.


5. 맺음말_ 금번 무재해 목표 1500만 인시 달성

의미는 남다르다. 일본 등 선진국이나 국내 대기업에서도 달성한



바 있으나 자체 안전활동기법 기반위에 달성한 기업은 SKC 천안공장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만족하지도 자만하지도 않으므로써 영원한 무재해의 SKC 천안공장으로 지속되기 위해 협력업체의 안전도 집중관리 하고 있다.

이는 어느 누구 한사람의 바램이 아니며, 이 곳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램이요, 의지이다.  <최종덕 기자>